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강원도민일보	11면	"청정 동해안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1
江原日報	07면	"오염수 걱정 말고 싱싱한 수산물 즐겨요"	2
CBS	온라인	김진태 지사 "추석 선물은 '맛·안전' 보장된 동해안 수산물..."	3
東亞日報	16A	"동해안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4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 도당 지방의원 연수 "총선 필승"	5
江原日報	03면	총선승리 의지 모으는 여야	6
江原日報	온라인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서 추석 명절맞이 장터 열고 홍보	7
강원도민일보	13면	횡성지역 농특산물 국회의사당에 총출동	8
江原日報	04면	도내 농어업인 수당 내년부터 상반기 지급	9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시기, 7월→3월로 앞당겨	9
충청mbc	온라인	농어업인 수당, 내년부터 상반기에 지급	10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 전국 1위 불명예...강릉...	11
ms투데이		(기획) 강원연구원 논란, 또 논란?중심엔 '현진권' 세 글자[...]	12
강원도민일보	09면	제24회 춘천사회복지대회 유공자 24명 표창	15
강원도민일보	16면	고성군 내년 도비 확보 총력... 28개 사업 47억원 목표	16
江原日報	19면	고성군 도비 47억 확보 총력	16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함명준(위 왼쪽) 고성군수·김진하(위 오른쪽) 양양...	17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최종수(평창) 도의원	17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신영재(왼쪽) 홍천군수·엄윤순(인제) 도의원	17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17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홍성기(홍천·왼쪽) 도의원·이상필 홍천군 이장연합...	17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7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 엄윤순 부위원장, 박호균....	17
江原日報	03면	"동해안 국비 반영 더 많이 배려해주시길"	18
江原日報	03면	강원 국비 9조원시대 개막 주역 "동해안 철도·고속도 연결 ..."	19
江原日報	01면	"규제 권한 가져오는 강원특별법 활용 동해안 경쟁력 강화"	20
江原日報	03면	"규제 권한 가져오는 강원특별법 활용 동해안 경쟁력 강화"	20

<b>江原日報</b>	04면	입장권 개막 전 19만장 팔려 흥행 예고	21
<b>강원도민일보</b>	06면	강원 중기 10곳 중 7곳 "추석자금 사정 곤란"	21
<b>강원도민일보</b>	09면	춘천 강남동 주민 숙원 행복센터 이전 추진	22
<b>강원도민일보</b>	10면	확 달라진 원주 댄싱카니발 오늘 막 오른다	22
<b>강원도민일보</b>	18면	[사설] 도내 전문대 회생 돌파구 찾아야	23
<b>강원도민일보</b>	18면	[사설] 초유의 총리 해임 가결 파장 적잖아	24
<b>江原日報</b>	25면	[사설] 강릉~부산 고속철 내년 개통, 동해안 시대 열기를	25
<b>江原日報</b>	25면	[사설] 동해안 미래 산업 비전 찾기, 치열하게 고민해야	26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11

## “청정 동해안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강릉 주문진서 소비촉진 캠페인  
6개 시군 수협·사회단체장 동참  
김진태 지사 “검사서 안전 판정”**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업인과 상인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진태 도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 조광운 강릉시수협조합장, 김광래 도립대총장, 권영만 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동해안 6개 시·군 수협조합장, 사회단체장 등은 21일 주문진어민수산물시장 등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는 21일 주문진 어민수산물시장에서 동해안 수산물 판매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상경기가 얼어붙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최근 서울 강남에서도 수산물을 홍보해 완판했는데 오늘 주문진에서도 청정 동해안의 수

산물을 모두 판매해 보려 왔다”며 “도에서 매일매일 수산물 안전검사를 하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홍규 시장도 “시도 동해안 수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방

사능 검사를 실시, 완벽한 데이터도 제시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수산분야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강릉 북부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현장 경매 체험도 이어져 시민,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경매에는 최근 대량으로 잡히고 있는 홍게를 비롯해 문어와 방어 등이 올라왔으며 김 지사는 방어에 낙찰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또 수산물 요리인 오징어회와 가지미무침, 홍게, 문어, 골뱅이 등을 맛볼 수 있는 시식부스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한편 도는 동해안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장비 1대 외에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수산자원연구원에 각 1대씩 2대를 추가 배치했다. 홍성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동해안 6개 시·군 수협 관계자들이 21일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 방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어업인과 상인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강릉=권태명기자

## “오염수 걱정 말고 싱싱한 수산물 즐겨요”

김진태 도지사 주문진서 캠페인  
안전성·품질 보증 등 적극 강조

강원특별자치도가 21일 강릉 주문진수산시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어업인들과 상인들을 위해 대대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소비 촉진 캠페인에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를 비롯,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 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조광운 강릉시 수협조합장, 어업인과 소상공인, 강원자치도청 공무원 등 600여명이 함

께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 김 지사는 방수앞치마를 착용하고 수산물 일일 경매인으로 참여했다. 특히 직접 낚잡받은 방어를 힘껏 들어 올리며 “이 방어는 싱싱하고 안전한 방어”라고 홍보했다. 이어 “긴장감 넘치는 눈치 작전의 치열한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 위판되는 수산물이 이렇게 어업인분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값진 산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경험이었다”고 경매 체험 소감을 말했다.

함께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참가자들은 주문진 수산시장 건어물상가와 수산시장을 돌면서 관광객에게 수산물 소비 홍보 안내문을 나눠줬다. 또 시식 부스를 통해 관광객들이 동해안 대표 수산물 요리인 가자미무침, 홍게, 지숙문어, 골뱅이, 오징어회 등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왔다.

김 지사는 “매일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산물이 몸에 나쁘다는 결과는 없었다”면서 “품질을 보증하는 만큼 동해안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재·권태명기자

2023 09 21 ( )

CBS

## 김진태 지사 "추석 선물은 '맛·안전' 보장된 동해안 수산물로"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핵심 요약

21일 주문진 수산시장서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을 돕기 위해 21일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수산물 촉진 캠페인은 지난 5일 서울 강남에서 강원도 수산물을 완판한 이후 두 번째 행사다. 이날 캠페인에는 권혁열 강원도의회장과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동해안 6개 시·군 수협, 어업인 및 소상공인 단체 등 600여 명이 함께 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수산물 일일 경매인으로 경매 현장을 체험했다. 김 지사는 직접 낙찰 받은 방어를 힐컷 들어 올리며 "이 방어는 싱싱하고 안전한 방어다"라며 "긴장감 넘치는 눈치작전의 현장을 맛보았다. 위판되는 수산물이 이렇게 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값진 산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자리"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을 돕기 위해 21일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을 돕기 위해 21일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김 지사는 "우리가 먹는 것인 만큼 안정성에 대한 품질 보증은 확실하게 할테니 이번 추석 선물은 맛과 안전이 보장된 동해안 수산물과 건어물을 강력히 추천드린다"며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모든 분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는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장비 1대에서 추가로 검사장비 2대를 확보해 북부권인 한해성수산자원센터(고성)와 남부권 수산자원연구원(강릉)에 배치했다. 요일별로 장소와 어종이 겹치지 않게 시료를 채취하여 매일 검사를 시행 중이며 검사결과는 도 홈페이지, 지역방송, 재해문자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東亞日報

2023 09 22 ( )

/ 16A



“동해안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강원도는 21일 강릉시 주문진수산물시장에서 동해안 어업인과 상인들을 돕기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진태 지사와 권혁열 도의회 의장, 동해안 6개 시군 수협, 소상공인 단체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 강원도 제공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03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박정하)이 21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지방의원 연수를 갖고 내년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강원도당

### 국힘 도당 지방의원 연수 “총선 필승”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21일 한자리에 모여 내년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박정하)은 이날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지방의원 연수를 가졌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은 총 146명으로 도내 지방의원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도민들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준 것은 국민의힘이 더 겸손하게, 더 확실하게 강원 공약을 실천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실천정당, 책임정당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은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도의회를 실현함으로써 총선 승리의 주역이 되겠다”고 했다. 김일용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시·군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에 충실하자”며 “지난 19대 총선 강원 전석 승리의 신화를 다시 한번 쓰자”고 했다. 이날 박사명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 총선 승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설화 lofi@kado.net

## 江原日報

2023 09 22 ( )

03

국민의힘 자치도·시·군의원 한자리

더민주 강원혁신회의 24일 발대식

## 총선승리 의지 모으는 여야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승리 의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도당은 21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강원자치도의원과 도내 시·군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방의원 연수를 개최, 총선 압승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국회 일정으로 불참한 박정하(원주갑) 도당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도민들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은 국민의힘이 더 겸손하고 확실하게 강원공약을 실천하라는 명령”이라며 “실천정당, 책임정당 구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를 실현해 내년 총선 승리 주역이 되겠다”고 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이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강원대 사회대 강의실에서 강원혁신회의 발대식을 갖고 혁신 의지를 다진다. 이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나는 왜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과 관련, 비상사태 선언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의당 신당 추진사업단은 지난 20일 도당사에서 신당 추진 간담회를 갖고 당원 의견을 수렴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갖고 도당이 직무대행체제에서 위원장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효성 사무처장을 재인준했다. 또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현정기자

2023 09 21 ( )

## 江原日報

##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서 추석 명절맞이 장터 열고 홍보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 군과 공동주최로 21일 국회서 직거래 장터  
농특산물의 인지도 높이고 판로촉진을 위해 4개 시간과 함께 마련 인기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홍천·횡성·영월·평창 4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국회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2023년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이날 장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특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촉진을 위해 홍천과 횡성, 영월, 평창군과 함께 마련했다. 횡성한우를 비롯해 횡성더덕, 평창황태, 평창송화버섯, 홍천갯, 홍천 홍합, 영월포도 등 40여개의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가 진행됐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해 국회 직원 및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성황을 이뤘다. 또 이날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강릉의 권성동 국회의원,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전주혜, 강민국, 주호영, 김도읍, 김형동, 김학용, 정진석, 최연숙, 송석준, 정희용, 구자근 국회의원, 신영재 홍천군수, 한창수(횡성)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최규만(횡성)의원도 참석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행사가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국회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와 판촉활동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도 열렸다. 농협중앙회와 함께 택배, 추석이벤트, 모바일 상품권을 사칭한 악성앱 설치와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등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요령이 담긴 안내장을 배부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13



김명기 황성군수는 21일 국회소통관 앞에 마련된 국회의사당 직거래 행사에 참가, 황성축협 한우판매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황성지역 농특산물 국회의사당에 총출동

### 군, 직거래행사 참가 홍보·판매

황성군이 2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3년 추석맞이 국회의사당 직거래 행사에 참가해 황성지역 특산물 홍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유상범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마련돼 국회소통관앞에서 황

성을 비롯한 4개 시군의 농축특산물을 선보였다.

군은 이날 △황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에서 황성잡곡세트와 햅쌀, 건나물, 누룽지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대표 오금택)에서는 황성더덕, 도라지, 무도라지청 △황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은 황성한우를 준비해 홍보판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기 군수를 비롯해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최규만 도의원, 엄경익 황성축협 조합장 등이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판촉행사에 힘을 보탰다. 박현철

# 江原日報

2023 09 22 ( )

04

## 도내 농어업인 수당 내년부터 상반기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내년부터 상반기로 당겨진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매년 하반기에 지급된 현행 농어업인 수당은 3~4월 농번기 농자재 구입 시기와 달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강정호(국힘·속초) 도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내용을 건의, 강원자치도가 수용하면서 지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강원자치도는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경영체를 등록, 실제 영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2023 09 21 ( )

##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시기, 7월→3월로 앞당겨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당초 7월에서 3월로 앞당겨진다.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7~9월 중 수당을 지원받으면서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해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를 당겨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강원도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경영체를 등록해 실제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3~4월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한 탓에 3~4월 농번기철 농자재 구입 등 지출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지난 7월 열린 도의회 농림수산위와 도내 농민단체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어려움이 언급됐었다.

춘천MBC

2023 09 21 ( )

## 농어업인 수당, 내년부터 상반기에 지급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이

상반기로 앞당겨져 지급됩니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농어업인 수당은 매년 3~4월에 신청받아

검증과 이의 신청을 거쳐 7월부터

지급돼 왔지만 봄철 농번기에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수당 지급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월과 2월에 수당 신청을 받고,

상반기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농업인 수당은 542억 원,

어업인 수당은 10억 원 지급됐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2023 09 21 ( )

#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 전국 1위 불명예...강릉시의회·양구군의회도 "하위"



▲ 강원도의회 임시회 모습.

강원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릉시의회와 양구군의회도 조례 발의 활동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1일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강원도의원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20.4%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높았다. 도의회 49명 중 10명에 해당할 수 있다. 이어 경남도의회 20.3%, 경기도의회 14.2% 순이었다.

강원도의회는 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1.73건으로 광역의원 평균 2.87건에 못미쳤다. 세종시의회(7.1건), 광주시의회(4.7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4.23건) 등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기초의회 가운데선 강릉시의회도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52.6%(19명 중 10명)로 나타나 226곳 기초의회 가운데 2순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순위는 경남 거창군의회(54.5%)였다. 강릉시의회는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도 0.79건에 그쳐 의원당 발의 건수가 전국 하위 8위였다.

또, 양구군의회는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42.9%(7명 중 3명)로 전국 4위로 나타났다.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는 전국 기초의회 중 하위 1순위라는 오명을 안게됐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1년 간 조례 발의 건수가 총 4건에 그쳐, 의원당 조례발의 건수가 0.57건으로 집계됐다.



▲ 강원도의회

도내 기초의원 174명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23명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비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도내 기초의원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는 2.52건으로, 평균 2.71건을 밀돌았다. 대전시 기초의회가 4.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선 홍천군의회 의원당 조례발의 건수가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양군의회가 4.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횡성군의회(4.57건), 삼척시의회(3.88건), 철원군의회(3.43건) 등이다.

전국적으로 광역의원은 870명 가운데 65명, 기초의원은 2987명 가운데 359명 등 총 424명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424명의 지방의원은 스스로 자신의 무자격을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설화

## (기획) 강원연구원 논란, 또 논란? 중심엔 '현진권' 세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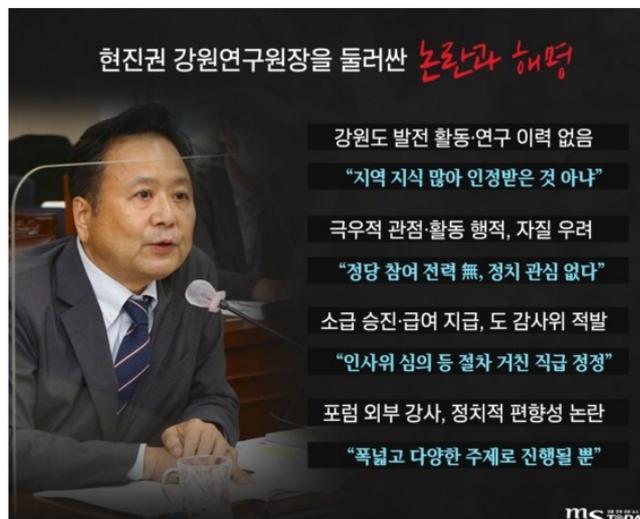
진광찬 기자

[강원연구원 어디로 가나] 하. 논란 진원엔 연구원장이  
초유의 '소급승진'으로 도 감사위 '기관장 경고'  
연구원 초빙 강사 줄줄이 정파성·고액 강사료 논란  
"지역 연고 無 현진권 원장, 김 지사 평판에도 악영향"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싱크탱크로 출범한 강원연구원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목표로 1994년 6월 설립했다. 매년 1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 비해 연구 실적은 부진하고, 수동적인 연구에 매몰돼 '지역 발전 모델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부터 이어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전문성 논란에 이어, 최근엔 인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기관장 경고'라는 초유의 행정 처분까지 받았다. MS투데이는 강원연구원의 부진한 연구 실적과 방만 운영의 실태를 2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원연구원은 지난달 말 이른바 '소급승진'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구설에 올랐다. 2년 전 가장 낮은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한 A씨를 '채용 당시 경력 산정이 미흡했다'며 뒤늦게 부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고, 3000만원에 달하는 급여 소급분까지 지급했다. 이런 '소급승진'은 규정에도 전혀 없을뿐더러, 채용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된 상태에서 뒤늦게 민원에 의해 계약 내용을 바꿔 급여를 더 챙겨준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원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내리고 소급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도록 했다. 또 강원연구원을 관리·감독하는 도 기획조정실에 철저한 지도를 요구했다.

강원연구원은 대규모 혈세를 쓰는 연구 전문기관이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할 뿐 아니라(본지 9월 14일자 보도 참조), 업무 외적인 불필요한 논란으로도 자주 도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취임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소급승진' 사건도 결정은 김석중 전 원장 대행 당시 이뤄졌을지라도 시행한 건 현 원장 취임 이후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 강원도 의원은 "후보자 시절부터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 논란이 일었던 현진권 원장이 연구원을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강원연구원은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현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전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경제연구원장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 재임 시절 불거졌던 논문 표절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언, 극우 매체로 꼽히는 펜앤드마이크·미디어펜 필진 참여 등의 행적을 부적격 사유로 임명 철회까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경력을 이유로 현 원장을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지만, 도의회의 인준을 받았다. 강원도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주요 경력

1959년 부산 출생

부산고,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원 지역계획학 석사

카네기 멜런 대학원 정책분석학 박사

자유경제원장(2014년~2017년)

바른사회시민사회 사무총장(2006년~2008년)

미디어펜·펜앤드마이크 필진

강원연구원은 현 원장 취임 이후 자체 포럼과 세미나에 정치적 편향성이 도드라지는 강사들만 줄줄이 초빙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연구원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매달 '아침공부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 섭외는 현 원장과 실무부서가 상황에 따라 추천한다. 강사료는 회당(90분) 약 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에 섭외된 강사들은 정파적으로 보수 쪽에 완전히 치우쳐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승만학당 교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도마에 올랐다. 이 전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논란이 되는 대표적 보수 성향 지식인이다. 최근 1년간 13차례 열린 아침공부포럼에서 이 전 교수 외에도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장,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등 줄줄이 보수 혹은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강연에 나섰다. 이 기간 진보 성향 강사는 없었다.

거기다 이렇게 초빙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침에 따르면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지자체 교육연수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해 편성하게 돼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 90분 강의에 100만원을 받으려면 '특1급'으로 명시된 전직 장관급이나 대학 총장, 대기업 회장 등이어야 한다. 아침공부포럼에 나선 강사 대부분은 대학교수와 연구원장, 차관급 등으로 1급이나 특2급이 주를 이룬다. 연구원 측은 '우수 강사 확보 등 필요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 가능하다'는 예산지침을 근거로 자체적인 규칙을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충북연구원 등은 인재개발원 지급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현 원장 취임 후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은 극우 보수의 유튜브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원은 심각한 정치편향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이승만학당 교장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강원연구원에서 아침공부포럼 강사로 나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현 원장은 기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자체 감사실을 총무팀에 통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팀이 있어야 할 만큼 연구원 조직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늦장을 부려 용역비 5억9000만원을 낭비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이 아닌 승진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최근 강원연구원의 일탈은 강원도와 관련한 연구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 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치로부터 떨어진 중립적 위치에서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원이 정치인의 '스펙 쌓기' 용 거쳐 가는 자리로 변질됐다"고 했다. 육동한 현 춘천시장이 강원연구원장(10~11대)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시장 선거에 나선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는 말도 있다.

현 원장의 행보가 그를 임명한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원장 임명 당시 김 지사는 "민간시장 활성화와 재정혁신 정책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자 김 지사가 일부 청문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김 지사 측근에서도 편중된 강원연구원 행보는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연구원의 계속되는 채용, 인사 불법과 비리 등은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 원장은 안하무인 식 독단적 조직 운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MS투데이는 이후로도 강원연구원의 부진한 연구 실적과 정치적 편향성·도덕적 일탈에 대해 지속 보도하겠습니다. 관련 제보를 기다립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09



제24회 춘천사회복지대회가 21일 춘천시청에서 열렸다.

### 제24회 춘천사회복지대회 유공자 24명 표창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미경)가 주최한 제24회 춘천사회복지대회가 21일 시청에서 열렸다. 권주상 시의회 부의장, 백창석 춘천부시장, 박기영·박관희·양숙희 도의원, 홍기종 도사회복지사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유공수상자 24명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윤리선언이 낭독됐다.

오미경 회장은 “지역 사회복지기

관들의 의견을 공유해 보다 좋은 정책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홍기종 회장은 “사회복지 시설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주상 부의장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 희망을 비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봉사의 땀방울이 더 큰 열매가 되어 맺힐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허영·한기호·노용호 국회의원도 축전을 보내대회를 축하했다.

김진형 ▶수상자 명단 kado.net



고성군은 20일 군수실에서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성군 내년 도비 확보 총력... 28개 사업 47억원 목표

고성군은 지난 20일 군수 집무실에서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함명준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복·이지영 도의원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재해 위험지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28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47억원의 도비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군이 발굴한 주요 도비 사업은 28개 사업, 총사업비 193억원으로 신규사업 27건 계속사업 1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태풍피해 복구 8억원, 적골천 기능복원 17억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 정비 17억원 등이다.

함 군수는 “세수 감소 및 태풍 피해

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해 군이 구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산

고성군 도비 47억 확보 총력

지역 현안 논의 간담회  
신규사업 27건 등 대상

【고성】고성군이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군은 지난 20일 군청에서 함명준 군수 및 김영복·이지영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도비 확보 및 지역의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규모 재해 위험지 태풍 피해 복구

사업 등 28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고 2024년에 필요로 하는 47억원의 도비 확보와 현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주요 도비 지원사업은 모두 28개로 전체 사업비는 193억원이다. 이 중 2024년도 도비 확보 대상은 47억원, 신규사업 27건, 계속사업 1건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재해 위험지 태풍 피해 복구사업 8억원, 적골천 소하천 기능 복원사업 17

억원, 고성군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 정비사업 17억원, 고성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조명 및 전광판 교체 4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3개소사업 2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 복구사업 10억원 등이다.

함명준 군수는 “세수 감소 및 태풍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해 군이 구상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열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16



함명준(위원장) 고성군수·김진하(위원장) 양양군수·김용복

도의회농림수산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30분 고성엑스포주행사에서 열리는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11



박호균 도의원은 22일 오후 2시 고성엑스포주행

사에서 열리는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다.

# 江原日報

## [동정]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 엄윤순 부위원장, 박호균.전찬성.최종수.홍성기.강정호 도의원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엄윤순(인제)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강릉).전찬성(원주).최종수(평창) 도의원은 22일 오후 2시 고성군 엑스포 주행사에서 열리는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22일 오전 11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2023년 제22회 홍천군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3일 오후 3시 속초문화예술회관 2층 소강당에서 열리는 속초문학 3집 출판기념회에 참석.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14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22일 오후 2시 고성엑스포

주행사에서 열리는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13



홍성기(홍천·왼쪽) 도의원·이상필 홍천군이장연합회장은 22일 오전 11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13



신영재(왼쪽) 홍천군수·엄윤순(인제) 도의원은 22일 오후 2시 30분 고성군잼버리수련장에서 열리는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16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2일 오전 11시 속초장사

항해역에서 열리는 강도다리종자무상방류 행사에 참석한다.

2023 09 21 ( )

江原日報

# “동해안 국비 반영 더 많이 배려해주시길”

**김진태 지사·동해안 지자체장  
김완섭 기재부 차관 차담회**  
“의원들도 만나기 힘든 분”  
오가는 덕담속 주요현안 건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동해안권 지자체장들이 21일 동해에서 김완섭(54·행정고시 제36회)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차담회를 갖고 지역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2023 동해안 발전전략심포지엄이 열리기 직전 동해 현진관광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차담회에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연 동해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김한수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안순현 기획재정부 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는 “오늘 김완섭 차관님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 여의도에서는 국회 의원들도 만나기 힘든 분”이라며 “아버님의 대를 이어 강원도를 위해 큰 일을 하셔서 강원도민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덕담을 건넸다. 원주 출신 김완섭 차관은 김영진 전 강원도지사(제25대)의 장남으로 올 6월 기재부 2차관에 임명되면서 도내 첫 ‘부자(父子) 차관’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그러자 옆에 앉은 이병선 속초시장은 “김영진 전 지사님 재임 시절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는데 자랑스러운 아드님을 만나 무척 반갑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속초를 방문해 강연을 진행했던 안



◇동해안권 지자체장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차담회가 21일 동해 현진관광호텔 1층 커피숍 아도니스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연 동해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김한수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안순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해=권태명기자

순현 과장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릉뿐 아니라 영동지역이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차관님과 안 과장님께서 먼 길을 오셨는데 국비 배정에서 동해안지역을 더 많이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더 시에나그룹과 구 펠리스호텔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박상수 삼척시장에게는 다른 지자체장들의 축하 세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한수 도 기초실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사였다. 김실장은 연임 여부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때 김완섭 차관이 불쑥 “김실장님이 더 오래 계시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강동휘기자

2023 09 22 ( )

江原日報

03

## 강원 국비 9조원시대 개막 주역 “동해안 철도·고속도 연결 급선무”

양구 출신 안순헌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장

2023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한 양구 출신 안순헌(53·사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은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9조원 확보의 주역이다.

당시 기재부 지방재정팀장이었던 안순헌 과장은 예산실장이던 김완섭 기재부 차관 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대며 꼼꼼하게 예산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기획재정협력관으로 파견, 당시 국비 8조원 시대 개막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특히 올 2월 총사업비관리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또다시 고향인 강원자치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총사업비관리과장은 대형사업, SOC 사업, 대규모 건설 및 R&D사업 등을 담당한다.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사업 등 굵직한 SOC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자치도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안순헌 과장은 역시 현재 강원도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SOC 확충을 꼽고 있다. 안 과장은 “동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속초~고성과 영덕~삼척 연결을 통해 부산까지 잇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영월~삼척 동서축도 연결한다면 동해안도 서해안처럼 해안도로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지인 세종시와의 접근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과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강원도가 불이익을 겪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순헌 과장은 춘천고,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헝가리 중부유럽대학 경영대학원 MBA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인사과 등 요직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신형철기자

# 江原日報

2023 09 22 ( )

01

## “규제 권한 가져오는 강원특별법 활용 동해안 경쟁력 강화”

###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안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기회로 삼아 규제 완화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일보사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동해·속초·삼척시, 고성·양양군 등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 주최한 ‘2023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이 21일 동해 현진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완섭 기

획재정부 제2차관은 “경제의 수도권 집중과 정부의 긴축재정 등으로 지방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강원자치도는 각종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라는 기회요인이 생겼다”며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심포지엄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지방시대와 균형발전’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의 사회로 시·군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고석민 동해부시장, 조인성 삼척시 경제진흥국장, 조영호 양양부군수, 김한수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안순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과장 등이 참여했다. 제2부 분과별 발제 및 토론은 대외관계 전략, 에너지 확보 전략, 관광활성화 전략, 향민활성화 전략 등 4개 분과로 나눠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지역 발전의

획기적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완공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동해안 6개 시·군이 역동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첫 번째 심포지엄에서 나온 동해안 도청 2청사 주장은 14년 만에 현실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명특기자

3면에 계속

# 江原日報

2023 09 22 ( )

03

## “강원특별법 활용 동해안 경쟁력 강화” - 1면에서 계속

이어 “심포지엄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당장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바로 채택돼 시행될 수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 기업인도 많이 참석했는데, 그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방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각종 규제는 강원 발전의 장벽이 돼 왔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다가왔다”며 “동해바다라는 공동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 시·군이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이 미래 산업 모색은 물론 글로벌 도시를 선도하는 발전적 길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09 22 ( )

# 江原日報

04

## 입장권 개막 전 19만장 팔려 흥행 예고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이 개막 전부터 18만장 이상 팔리며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공 개최의 바로미터가 될 개막 첫 주 관람객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은 18만9,400매로 집계됐다. 유료관객 목표는 105만명으로 개막 전 18%가량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막 1주일을 앞두고 입장권 5만매 이상이 집중적으로 판

유료 관람객 목표 18% 예매율 첫 주말 관람객 규모 관심 집중 공연·이벤트 등 프로그램 풍성

매대 차츰 붐업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일 풍성한 개막 행사에 이어 개막 첫 주말인 23일과 24일에도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체험행사가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다. 23일 오후 3시부터 솔방울전망대 무대에서는 동아시아지방정부공연맹(EATOF) 회원국이 함께하는 'EATOF DAY in 강원&트롯콘서트'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필리핀 세부주지사, 몽골 튜브도지사를 비롯해 EATOF 회원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ATOF 회원국 문화공연으로 필리핀 세부 공연팀과 북마리아나주 사이판 공연팀의 공연도 펼쳐지며 미스트롯2와 미스터트롯2에 출연한 설하윤, 박서진의 공연과 함께 K-POP커버댄스 공연도 선보인다.

24일 오후 3시부터 솔방울전망대 무대에서는 박재정과 백아연이 출연하는 포레스트강원 발라드콘서트가 진행된다. 또 23일과 24일에는 파이 어트롯의 미술공연과 전통연희공연단의 한국무용 공연도 함께 열린다.

22일부터 사흘간 엑스포 주행사장에서는 11개 시·군 20여개 부스 규모의 강원 대표 특산품 특판전과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솔방울전망대, 힐링광장, 숲길체험을 즐길 수 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학술행사가 마련돼 있으니 날짜별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일정을 짜는 것도 산림엑스포를 더욱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 09 22 ( )

# 강원도민일보

06

## 강원 중기 10곳 중 7곳 "추석자금 사정 곤란"

도내 147개사 자금 수요조사

96.3% '3고 영향 부정적' 응답

1억5700만원 필요 부족률 81.3%

강원지역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에 고금리로 인한 대출부담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추석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중소기업회장 최선운)가 지난 7~14일 강원지역 중소기업 14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특

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77.0%)이 추석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66.2%)이 가장 컸고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54.6%) 등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자금사정 곤란과 관련해서는 '3고(고물가·금리·환율)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96.3%에 달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69.0%로 '원활'(5.5%)보다 현저히 높게 조사되며 자금조달 여건 상황도 부정적이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은 이번 추석에

평균 1억9300만원의 자금(임금, 원자재 등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 전국(1억1560만원) 보다 높은 가운데 필요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금액은 1억570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81.3%를 기록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고 최근 3고의 영향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판매(매출)부진 등이 가중돼 추석 필요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천의 한도·소매 서비스 업종 A사는 "경영상 심화에 자금 사정이 매우 곤란해 추석 자금을 거의 준비하지 못했다. 현재 뚜렷한 자금확보 대책도 세우

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부족한 추석 자금 확보 계획(복수응답)에 대해 결제연기(58.9%), 납품대금 조기회수(29.9%), 금융기관 차입(29.0%)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대책없음' 응답도 52.3%를 차지했다.

최선운 강원중소기업회장은 "미국 발 기준금리 인상과 3고로 인해 당분간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필요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시·군 지자체 및 정책기관·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선우

2023 09 22 ( )

09

# 강원도민일보

## 춘천 강남동 주민 숙원 행복센터 이전 추진

인구 유입 급증 공간 협소 지적  
온의동 아웃렛 건물 잠정 결정  
예산안 반영 의회 통과시 확정

숙보=춘천 강남동행정복지센터와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이 한 건물을 사용해 행정·복지업무의 과부하가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본지 4월 20일자 9면)된 가운데 두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최

근 온의동 인근 아웃렛 상가건물을 일부 매입하기로 잠정 결정, 강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이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현재 아웃렛 상가와 가계약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산안에 이전 사업을 반영, 춘천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이전이 확정된다.

강남동행정복지센터는 2013년 온의동 롯데마트 맞은편의 한 건물로 이전, 춘천남부노인복지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일대는 주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위치

하고 신규대단지아파트가 생겨나면 서 인구 유입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간이 협소하면서 복지서비스와 행정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하루 300명 이상이 방문하고 같은 건물 남부노인복지관에서도 4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방문 대기자수도 100여명이 훌쩍 넘는 상황이다.

김소영 남부노인복지관장은 "강남

동에 노인인구가 많고 인구가 폭증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행정복지센터에도 자생단체들의 행사가 많고,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많아 장소가 협소했는데 남은 절차도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옥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두 기관을 신속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숙원의 첫발을 떤 셈"이라며 "남은 행정절차들도 신속히 해결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2023 09 22 ( )

10

# 강원도민일보

## 확 달라진 원주 댄싱카니발 오늘 막 오른다

댄싱공연장 특설무대 규모 확장  
전야제 경연 수상팀 8팀 선정  
객석 조명 퍼포먼스 빛의 향연

새로운 변화가 가미된 2023 원주 댄싱카니발이 22일 막을 올려 원주 도심을 들쭉인다.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이 '하나된 몸짓, 하나된 원주'란 슬로건 아래 선보이는 이번 축제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사흘간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취임한 박창호 재단 대표이사와 김정 축제 총감독이 '안전'과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축제를 위해 호흡을 맞추고 있다.



2023 원주 댄싱카니발 개막을 하루 앞둔 21일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사진은 댄싱공연장 초대형 특설무대.

지난해와 같은 기간, 같은 예산이지만 규모 등 여러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메인 행사장인 댄싱공연장 특설무대 규모 역시 커졌다.

양쪽으로 갈라지는 가로 22m, 높이 6m의 초대형 스크린을 배경으로 한 특설무대는 한층 수준 높은 공연

으로 가득 채워진다.

무대 높이는 관람객 눈높이에 맞춰 대폭 낮아졌다. 기존 2~3층석 외에 1층 무대 주변에 700석을 별도 배치, 무대와 관객간 거리를 좁혔다.

사전에 매로 진행된 1층석은 이미 매진됐다. 올해 안전에 중점을 둔 만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팔찌 착용이 의무화 되고, 출입 동선이 댄싱공연장 주출입구로 일원화 됐다.

올해 예선을 통과한 팀은 12팀으로, 이 중 8팀을 기존 폐막 당일이 아닌 전야제에서 경연을 통해 수상팀으로 선정한다. 수상팀은 23~24일 양코르 공연을 펼친다. 여기에 가수인순이, 김범수, 프로미스 나인의 공연, 시민합창단과 시립합창단·교향악단의 합동공연, 한·일 비보이팀 공

연, 연합 군악대 공연, 뮤지컬 배우 100인 합동공연, 해외팀 공연 등 알찬 공연들이 준비돼 있다.

하이라이트는 하이테크놀로지 공연장비인 '매드릭스'를 활용한 객석 조명 퍼포먼스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서 선보인 기술로,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여기에 드론쇼, 불꽃쇼가 원주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댄싱주최장 상설공연장, 댄싱 야외소공연장, 치악예술관 공연장에서는 96개팀이 참가하는 '프린지 페스티벌'이 펼쳐져 흥을 더한다.

제9회 치악산한우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메뉴의 먹거리부스와 미디어아트전, 프리마켓, 체험부스 등도 즐길 수 있다. 권혜민 khm29@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 18

## 도내 전문대 회생 돌파구 찾아야

-모집인원감소 경쟁률 하락, 위기감 고조

2024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결과 서울권 4년제 대학과 지방대학 간 경쟁률 간극이 더 크게 벌어지면서 도내 전문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관광대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해 전문대학의 생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와 경쟁률 하락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출발 당시 주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전문대학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학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회생시키기 위해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강원관광대를 제외한 도내 7개 전문대학의 수시 1차 모집인원은 2527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14명 줄었습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도내 전문대들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된 4년제 대학 수시 원서접수 결과 서울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7.79대 1을 기록, 최근 4년 새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습니다. 반면 지방대 평균 경쟁률은 5.49대 1에 그치며 경쟁률 격차가 12.3대 1까

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역 전문대로까지 확대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나타난 도내 전문대의 수시 경쟁률 하락세는 위기를 예측하게 합니다. 2021학년도 수시 1차 원서접수 결과 도내 전문대 평균 경쟁률은 3.04대 1이었으나, 2022학년도에는 2.6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는 2.53대 1을 기록하며 재차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수시 2차 역시 2021학년도 4.51대 1에서 2022학년도 3.53대 1, 2023학년도 3.45대 1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입니다. 대학들은 학생 수요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고 있으나, 학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입시 박람회에서도 참석 인원이 적어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문대가 회생하려면 전문성 강화가 우선입니다. 특히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 연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산업을 겨냥한 체질 개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 지역 내 기업이나 산업과의 연결 고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대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9 22 ( )

/ 18

## 초유의 총리 해임 가결 파장 적잖아

-국정심기일전하고 여·야대치로 민생 실종없어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9월 18일 국회에 제출됐고 어제(9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하면서 재적 의원 과반 조건을 훌쩍 넘기며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어서 향후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이은 세번째입니다. 두 장관 모두 대통령의 거부가 있긴 했으나, 초유의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사안은 이전보다 가볍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지점도 있겠으나, 정부 출범 직후 서울 도심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을 비롯해 최근 잼버리대회 파행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굵직한 문제가 불거져 국정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각종 경제 지표에서 부정적 인수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은 가계와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OECD에서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방문에서 보여주듯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무기 경쟁 내지 각국의 첨예한 이해 다툼 속에서 갈등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으나, 다수의석을 보유한 같은 당 의원 일부가 찬성함으로써 제1야당의 균열을 노출함으로써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 격랑에 휘둘리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의제가 실종되고,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 역할에 소홀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정 운영과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제1야당의 분열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 운영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江原日報

2023 09 22 ( )

/ 25

## 강릉~부산 고속철 내년 개통, 동해안 시대 열기를

동해선 삼척~포항 고속철도의 공정률이 95%를 돌파했다. 동해~포항 전철화사업은 40%를 보이고 있다. 동해선 삼척~포항 고속철도는 166.3km다. 동해~포항 전철화사업은 삼척~포항 간 신규 철도노선과 기존 동해~삼척 12km 구간을 전철화하는 작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40%대에 불과하지만 토목공사가 아닌 전력 공급 공사라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 삼척~포항 고속철도 공사와 동시 완료가 가능하다. 멀게만 느껴졌던 부산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동해선이 완전 개통되면 동해~삼척~포항 구간은 50분대, 강릉~동해~삼척~포항~울산~부산 구간은 3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다. 특히 강릉과 원주 모두 부산까지 2~3시간대 연결이 가능해져 동해안과 강원남부권 물류, 산업, 관광 등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동해, 삼척 등 강원 동해안은 해안 절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 등에서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해 찾아가기 힘든 오지로 여겨온 게 사실이다. 실제 부산에서 동해까지 운행하는 무궁화호의 열차 소요 시간은 무려 6시간이 넘는다. 강릉과 부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동해선 사업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던 이유다. 동해선 전 구간 전철 개통이 이뤄지면 고

속열차가 강릉~부산 간을 매일 6회 운행하고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고 한다. 서울과 강릉을 동서로 잇는 KTX 강릉선 개통은 이미 양 지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드는 '교통 혁명'을 가져왔다. 삼척~포항선이 완료되면 강원 동해안과 부산 간 당일치기 관광도 할 수 있다. 강릉이나 부산에서 출발해 쾌적하게 여행을 마치고 KTX로 서울로 이동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중앙선 복선전철 경북 도담~안동 구간도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구간이 준공되면 서울~원주~안동~경주~울산~부산이 이어진다. 원주~부산 간 운행 시간은 2시간10분대로 예상된다. 강원~수도권 철도망 연결에 이어 강원~경북·경남·부산권도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가철도망의 대폭 확충이 이뤄지면 교통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해안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은 무엇인지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필요하다면 부산, 경북 등 지자체와도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지역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江原日報

2023 09 22 ( )

/ 25

## 동해안 미래 산업 비전 찾기, 치열하게 고민해야

국가 개발전략은 그동안 남서해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투포트(Two-port) 정책으로 항만을 육성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부산, 광양, 인천, 동해 등 국토 4축의 포포트(Four-port)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해는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과 해양 관광의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이 지닌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뛰어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갈수록 지리·경제·정치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동해안 항만 육성에 신경을 쓰는 등 국토 균형발전에 역점을 뒀다. 지금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동해안 지역 발전전략에 시동을 걸어 나가야 할 때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변방이 아니다. 새로운 물류 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곳이다.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전략적 요충지다. 미래에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다자간 개발 협력의 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이 교역·관광의 허브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투자를 통해 도내 항만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찾는 노력을 강도 높게 실행해야 한다. 강원도 최북단인 간성과 부산을 잇는 동해안은 거리가 513km로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동해안은 국가 발전전략

에서 가장 관심도가 낮은 지역이다. 강원도와 경북, 울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은 이른바 낙후벨트로 꼽혀 왔다.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전략은 지금까지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축이 중심이 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발전전략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던 시절, 불균형 성장전략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문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세계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전략적 중요성이 큰 동해안이 여전히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데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진정 국가의 먼 앞날을 걱정하고 전략적인 사고와 판단을 한다면 동해안을 새롭게

###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동해서 열려 '자치단체로 넘어온 권한 어떻게 행사해 새 물류 경제권 육성할지 대안 만들어야'

조명해야 한다. 21일 동해 현진관광호텔에서 '동해안의 미래 특별자치도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동해안의 현실과 과제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자리였다. 특히 1부 토론에 참석한 시장 군수들은 동해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공조하기로 다짐했다. 동해안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제 동해안 자치단체들은 지역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은 무엇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법적 조건을 무슨 방법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자치단체로 넘어온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며, 지역 주민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